

|                    |  |
|--------------------|--|
| 저자<br>(Authors)    | 이규완<br>Kyu-Wan Lee   |
| 출처<br>(Source)     | <a href="#">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7(2)</a> , 2013.05, 159-188(30 pages)<br><a href="#">Locality &amp; Communication 17(2)</a> , 2013.05, 159-188(30 pages) |
| 발행처<br>(Publisher) | <a href="#">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a><br>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
| URL                |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8732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87320</a>  |
| APA Style          | 이규완 (2013). 삼국유사 색채어의 길흥표현과 오방정색론의 확산에 관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7(2), 159-188   |
| 이용정보<br>(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br>183.106.106.***<br>2021/08/13 10:15 (KST)  |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국유사 색채어의 길흉표현과 오방정색론의 확산에 관한 연구\*

이 규 완\*\*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삼국시대의 대표적 사료 중 하나인 「삼국유사」에 사용된 색채어를 분석하고 색이 나타내는 길흉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삼국유사」에는 총 19가지의 색이 147회에 걸쳐 사용되었다. 우리말의 기본색채어인 하양(21.1%), 빨강(19.7%), 까망(6.1%), 파랑(14.3%), 노랑(8.2%) 등 5가지 색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였다. 우리 민족이 하얀색과 빨간색을 선호하였음을 「삼국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라색(10.2%)과 금색(11.6%)도 기본색채어 수준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들 7 가지의 색이 전체 색채어의 90%를 차지한다. 삼국시대의 정사인 「삼국사기」에 비해 야사인 「삼국유사」에서 사용된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색은 파랑과 금색이다. 파랑은 2배, 금색은 약 3배 정도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색이 길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비교하면 「삼국사기」에 비해 「삼국유사」에서 색이 흉한 의미로 사용된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빨간색과 까만색을 흉한 의미로 사용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파란색과 금색을 길한 의미로 사용한 경우가 증가하였는데 오방정색론과 불교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방정색론이 도입되면서 전통색사상에서 하늘을 뜻하였던 하얀색에 서쪽이라는 의미가 추가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방정색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불교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7~8세기 전후)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자가 6~7세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과 비교하면 1세기 정도 늦은 것이다. 7세기 이전에 사용된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해석은 우리민족의 우리민족 고유의 색사상이나 커뮤니케이션사상에 기초해야 하고, 확산 시기 이후에는 전통사상과 오방정색론 중에서 하나를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imagelee@donga.ac.kr

주제어: 색채커뮤니케이션, 삼국시대, 삼국유사, 색채어, 길흥표현, 오방정색론, 전통사상

## 1. 문제의 제기

색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된다. 색은 의미를 생성하고 교환하는 중요한 상징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인간은 사물을 형태(形態)로 구별한다. 형은 모양을 말하는데 선과 면으로 구성된다. 상태를 말하는 태는 색(色)과 질(質)로 구성된다. 사물의 형이 다양하지 않으면 태의 차이로 구별한다. 또 질이 다양하지 않으면 색의 차이로 구별하게 된다. 동일한 내용의 드라마를 한국, 일본, 대만에서 방송할 때 사용한 TV세트 디자인의 색채가 서로 다른 것은 같은 의미를 전할 때 문화권에 따라 사용하는 색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원혜정, 2009). 또한 색은 수용자의 기억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옥외광고에서 사용한 색의 차이가 수용자의 기억이나 상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신현신, 2009), 국기에 사용된 색채의 구성이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최일도, 2011). 즉, 색은 인식에서부터 의미공유 그리고 태도변화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의 전 영역에서 작용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색은 무수히 다양하지만, 색을 범주화한 색채어의 수는 제한적이다. 색채어는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을 범주화하여 묶어 표현한 언어이다. 따라서 색의 의미와 색채어의 의미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범주화의 특성 때문에 색채어의 의미가 색의 의미보다 더 정교하고 표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색채어의 기본이 되는 것을 기본색채어라고 한다. 기본색채어의 특징은 단일어소적(單一語素的)이어서 다른 색채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둘째, 한정된 사물에만 적용되지 않을 것. 셋째, 외래어가 아닐 것. 넷째,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이름을 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이다(김방한, 1998, 3쪽). 지구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지만 기본색채어는 하양(white), 까망(black), 빨강(res), 초록(green), 노랑(yellow), 파랑(blue), 갈색(browm), 진홍색(purple), 분홍색(pink), 주황색(orange), 회색(grey) 등 11개 밖에 없다. 한국어의 기본색채어는 까망, 하양, 빨

강, 노랑, 파랑 등 5개이다(김방한, 1998, 220~225쪽).

민족에 따라 갖고 있는 기본색채어도 차이가 있지만,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경험 또는 종교나 사상의 차이에 따라 민족별로 사용하는 색채어도 달라진다. 자연환경에 따라 특정한 색의 범주에 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년의 거의 대부분을 눈과 얼음 속에서 사는 에스키모는 하얀색 계열에서 7개의 색채어를 사용하고, 마리오족은 붉은 색을 100개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구별한다고 한다. 유럽인들은 다른 문화권보다 회색계열의 색채어가 다양하다고 한다. 주어진 자연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특정색에서 더 많은 색채어를 사용하는 것이다(정진국옴김, 2002, 28쪽).

색은 고유의 물리적 특성이나 화학적 특성으로 수용자의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심리적 반응을 야기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색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색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한 민족의 자연환경, 역사적 경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녹색과 청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색이다. 기독교에서 녹색은 현실사회를 의미하고, 청색은 내세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녹색은 내세를 의미하고, 청색은 현실사회를 의미한다. 녹색과 청색의 의미가 서로 반대이다. 중국인들은 황색과 적색을 선호하고 백색을 기피한다(정진강, 2005). 한국인들은 백색을 선호하지만 황색을 기피한다(김용훈, 1987, 93~97쪽). 같은 색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미나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문화권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색의 사용은 이해보다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이 특정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할 경우에 색은 기호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기호학에서 기호를 겉으로 들어나는 모양인 기표와 그 안에 담긴 의미인 기의로 구분한다. 색의 의미가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은 기표는 동일하지만 기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색의 의미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한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 고유사상의 발전이나 외래사상의 전래와 확산에 의해 색이 갖는 의미가 변할 수 있다. 색이라는 기호의 기표는 동일하지만 기의가 변화한다. 해방 후 한국에서 빨간색은 공산주의나 북한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을 거치면서 빨간색에

한국 또는 한국의 축구국가대표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색의 의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탈맥락적으로 설명할 경우에 기존의 의미와 새로운 의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대표적 의미로 해석될 것인지를 둘러싼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색에는 고조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색에 더해진 사회문화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기에 이러한 경쟁은 더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삼국시대 역사서 중의 하나인 「삼국유사」의 기록을 분석하여 삼국시대에 사용된 색채어의 종류와 빈도 그리고 색채어의 길흥표현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또한 삼국시대에 한반도에 전래되고 확산되어 전통색의 의미변화에 큰 영향을 준 오방정색론의 확산시기를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추론하려는 것이다.

언론학 연구에서 왕조시대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하나로 색을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언론학에서는 색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의 하나인 외양에 관련되는 정도로 취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커뮤니케이션보다 의미의 명료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연구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통언론현상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 이후의 미디어에 대한 연구나 왕조시대의 언론에 대한 연구 또는 공자나 맹자, 정도전 등 선현의 언론사상을 밝히는데 주된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고대의 커뮤니케이션사상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거나, 문자와 색 등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성요소 등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 언론사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민족의 고대 생존조건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사상의 모성성을 밝히거나, 소리말을 쓰던 우리민족이 중국의 뜻글자를 빌려와 사용하면서 어떠한 사회변동차원의 의미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였다(박허식, 2008, 2010). 문자 중심으로 전통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데서 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전통소리의 특징을 커뮤니케이션차원에서 밝혀 보기도 하였다(김성재, 2012). 또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분석하여 삼국시대에 사용된 색채어의 종류와 사용빈도 그리고 색채어의 길흥표현을 살펴보기도 하였다(이규완, 2011). 이러한 연구들은 그동안 문자와 미디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연구나 언론활동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연구가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를 메꾸어 커뮤니케이션연구의 체계화와 연구영역 확대에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언론학의 연구영역을 현대적 의미의 미

디어 중심에서 말과 문자, 소리 등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구성요소로 확대하고, 시간적으로는 조선왕조 중심에서 그 이전의 과거로 확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정도를 송신자와 수용자가 의미를 공유한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의미공유와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학은 기호의 의미론적 속성과 구문론적 속성에 관심을 갖는다(강태완 옮김, 2004, 5쪽). 의미론은 단어나 이미지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가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한다. 구문론은 개별 구성요소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연결하여 의미를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사상의 발전이나 외래사상의 전래에 의해 한 민족이 사용하는 기호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색이 갖는 의미에 변화를 주는 사상의 발전이나 외래사상의 전래와 확산을 살펴보는 일은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도 연결된다.

오방정색론은 중국에서 정리된 음양오행사상에 입각하여 방위, 사물, 계절 등을 황, 청, 적, 백, 흑이라는 다섯 가지의 색과 연결한 것이다. 한국의 고대사에서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변화에 큰 영향을 준 외래 색사상인 오방정색론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천신사상에 의한 색의 의미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천신사상은 한민족의 대표적 고유사상으로 단군신화나 박혁거세 탄생설화 등에서 엿볼 수 있다(정경환, 2009). 환인-환웅-단군의 연결에서 우리 민족을 천신(하늘신)의 후손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환(桓)과 단(檀)은 밝다 또는 하얗다는 뜻을 갖는다. 천신사상에서 하얀색은 하늘을 의미한다(김명하, 2002). 그런데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오방정색론에서는 하얀색은 서쪽, 가을, 금속을 의미하지만 하늘이라는 의미가 없다.

색의 의미해석은 색이 사용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Knapp, 2006, pp. 117~119). 기호로 색을 사용할 경우에 색의 의미는 색이 갖는 물리적 파장의 특성, 색이 대표하는 사물의 특성, 그리고 색에 부여된 사회문화적 의미 중에서 그 맥락에 맞는 것이 선택된다. 오방정색론의 확산시기를 추론하는 것은 삼국시대의 색을 해석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색의 의미론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오방정색론이 확산되기 전에 사용된 색에 대해 오방정색론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고유사상이나 오방정색론에 의한 의미 중에서 선택하여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삼국사기」의 색채어분석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삼국유사」의 색채어 분석과 오방정색론의 확산시기를 확인하는 작업을 더하여 삼국시대에 색채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의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색의 의미론적 범위를 확인하는 기초자료의 하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래사상의 전래와 확산이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변동의 특징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색채어의 종류와 사용빈도, 길흥표현은 어떠한가.**

신라 법흥왕은 율령을 선포하고, 백관의 공복에 주색과 자색의 차서를 정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4, 법흥왕 7년 정월). 주색(靑)은 왕이 사용하는 색이고, 자색(보라)은 귀족이 사용하는 색으로 서열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다. 「삼국사기」에 나라의 법률을 선포한 것과 공복의 색서열을 정한 것을 같은 수준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삼국시대에 색은 법률처럼 중요한 사회제도였고, 색은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것이다. 삼국시대의 역사서 중에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에 사용된 색채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졌으나(이규완, 2011), 야사(野史)인 「삼국유사」의 색채어분석이 행해지지 않아 삼국시대에 색채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삼국유사」의 색채어를 분석하여 삼국시대에 색채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의 전체적 모습을 그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국시대에 사용한 색의 종류와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그동안 민속학, 역사학, 의류학, 군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간의 연구들은 전통사회의 색을 연구 주제로 한 경우도 있고, 색이 연구의 한 부분이었던 경우도 있다.

의류학은 주로 전통사회의 의복색을 통해 전통색을 정리하였다(김영숙, 1988). 삼국사기나 고분의 그림 등을 분석하여 삼국시대의 옷의 색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김진구, 1994, 1998, 1999; 이은미, 1994; 전해숙, 1998). 왕조시대의 군복을 연구하면서 색을 정리하기도 하였다(김순규, 1997; 김정자, 1998). 한국의 옷에 나타나는 색동의 의미를 음양오행설로 설명하기도 한다(주영주, 2004). 언어나 문화분야는 향가나 시조 등 문학작품이나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어를 분석하여 전통색을 설명하였다(김영수, 1979; 이부형, 1990). 또한 우리나라의 기본 색채어 5개를 오방정색론과 어원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이종상, 2001). 단청문양을 이용하여 한국전통의 배색을 설명하거나(정유나, 1996), 고분벽화를 분석하여 전통색에 대한 미의식을 분석하였다(송환아, 1997).

또한 역사분야에서는 삼국시대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색을 논의하기도 하였다(권준혁, 2002; 노중국, 1999). 백색이나 보라색 등 개별색의 의미를 설명한 연구들도 있다. 즉, 한국인에게 흰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단군신화와 불교 유교 등에서 그 사상적 배경을 찾아 밝히기도 하였고(김은경, 2006), 신라의 건국신화를 통해 백색과 보라색의 의미를 밝히기도 하였다(주미경, 2007).

이들 연구들을 통해 해석된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들은 전통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색에 대한 연구들은 개별색이나 개별 현상을 설명하지만, 삼국시대에 사용된 색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규완의 연구(2011)는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색채어를 분석하여 색채어의 종류와 빈도 그리고 그것의 길흥표현을 밝혀 삼국시대에 사용된 색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함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서인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색채어의 전체적 모습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연구문제 1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색채어의 종류와 사용빈도 그리고 길흥의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더불어 이규완의 연구(2011)에서 제시한 「삼국사기」에 나온 색채어의 특성과 「삼국유사」의 그것을 비교하려고 한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등은 우리말로 되어 있었던 색채어를 뜻글자인 한자로 기록한 것이다. 우리말 색채어를 한자로 표현할 때 일치하는 한자가 없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우리말의 하얀색 계열을 나타내는 한자는 대부분 백(白, 71회)으로 표현되었고 소(素, 5회)와 옥(玉, 1회)을 일부 사용하였다. 빨간색계열을 나타내는 한자는 적(赤), 비(緋), 홍(紅), 주(朱) 등 7가지였다(이규완, 2011). 하얀색은 우리민족이 숭상하는 색이고 등장빈도도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된 한자는 1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빨간색의 사용빈도는 하얀색보다 적지만 사용한자는 7개로 하얀색의 2배가 넘는다. 이는 우리민족은 하얀색을 좋아하였지만 중국민족은 하얀색을 좋아하지 않아서 하얀색을 나타내는 한자색채어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리말을 뜻글자로 기록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삼국유사」의 색채어 사용빈도분석에서도 살펴보고 한다.

## 연구문제 2 : 오방정색론은 삼국시대의 어느 시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는가.

색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그 사회가 채택한 사상이나 종교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 전통색의 의미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오방정색론으로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설명해왔다(문은배, 2012; 이제만, 2005; 하용득, 2001; 이순만, 1997). 그러나 이들 연구는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는 배경이 된 오방정색론이 어느 시기에 전래되고 확산되었는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일부 연구들이 오방정색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들 역시 오방정색론의 확산시기를 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송환아, 1997; 김은경, 2006; 주미경, 2007). 연구문제 2는 「삼국유사」에서 색채어의 의미와 관련된 기록을 비교분석하여 삼국시대의 어느 시기에 오방정색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집단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색이나 색채어가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는 과정을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다. 관찰된 기이한 자연현상이나 희귀한 색의 동물(1단계)을 동시 또는 바로 이어서 관찰되는 독특한 사회현상(2단계)에 연결하여 특정 사상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해석과정(3단계)을 거치면서 길흉이나 서열 또는 방위 등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4단계)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 사물을 탈락(5단계) 시킴으로써 색채어가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표현하는 기능(6단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이규완, 2011, 107쪽). 따라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연결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3단계에 관계하는 사상이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색의 사회적 의미가 6단계를 거쳐 이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색이

왜 그러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기록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방정색론처럼 외부에서 전래된 사상과 연결된 색의 의미는 경험한 것이 아니어서 따로 의미를 설명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실제로 「삼국사기」의 색채어 관련기사에서 오방정색론에 따라 색을 해석하는 경우에만 특정한 색이 왜 그런 의미를 갖는지를 따로 설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색의 의미를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이규완, 2011, 118~119쪽). 자연현상인 색이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도록 사회사상이 영향을 주는 과정은 자연재해를 인간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해석하는 재이론(災異論)의 해석방식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재이론은 동양의 전통사회에서 자연현상을 인간사회와 연결하여 해석한 대표적 사상이다. 재이란 자연에서 나타나는 범상치 않은 변화를 뜻하는데, 그 중 작은 것을 재라 하고 이것이 먼저 일어난 후에 잇따라 큰 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재변은 군주의 잘못에 대한 하늘의 꾸짖음이며 이변은 하늘의 위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두려움과 공구함을 알지 못하면 그 위태로움과 재앙은 극에 이르게 되므로, 군주는 하늘의 뜻을 알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김영주, 2009, 138쪽). 재이론에 따르면 가뭄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은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전통색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영향을 준 것은 천신사상, 음양오행사상 그리고 유교와 불교 등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천신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대 사상 중 대표적인 것이 천신사상이다(정경환, 2009). 천신사상은 단군신화에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만,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등 삼국시대의 다양한 문물에서 나타난다. 천신사상은 천신을 숭배하고 우리 민족을 천신의 후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을 천신의 후손으로 설명한다. 환인-환웅-단군의 연결이 천신과 우리 민족의 관계를 말한다(김명하, 2002). 환(桓)과 단(檀)은 밝다 또는 하얗다는 뜻을 갖는다. 천신사상은 하늘(태양)을 밝은 것으로 이해하였고 하얀색으로 나타낸다.

고구려 고분 진파리 7호분에서 출토된 금동판에 있는 해를 상징하는 둥근 원, 천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현조(玄鳥, 瑞鳥)인 까마귀(三足鳥), 봉황 그리고 용 등은 천신사상을 나타낸다(김주미, 2009). 천신사상에서는 새를 신이 타고 다니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신령한 새가 현실에서 까마귀(玄鳥)와

꼬리가 긴 닭으로 나타난다. 동이족의 현조송배에 불을 숭상하는 염제족의 붉은 색이 가미되어 검은 까마귀는 붉은 까마귀가 되고 주작으로 변하여 고구려 고분 벽화의 봉황문으로 나타난다(김주미, 2004). 즉, 고구려의 문화와 색을 오행사상으로 설명하기보다 천신사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표로 해석된다. 청룡이나 황룡은 길조로 흑룡은 흉조로 해석되어 용의 색깔이 길흉을 의미한다. 신라향가의 사상적 배경으로 유교, 불교(龍神신앙), 샤머니즘, 그리고 용사(龍蛇)신앙 등을 거론하는데, 용사신앙이 천신사상과 관련된다(박상진, 2005).

이렇듯 천신사상을 삼국시대의 문헌이나 문물에 나타나는 색을 해석하는 기반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천신사상 같은 전통사상보다 중국에서 전래된 음양오행사상과 오방정색론(五方正色論)으로 삼국시대의 색을 설명하였다.

음양오행사상은 음양사상과 오행사상이 합쳐진 것이다. 중국인들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이란 인류 초기적 사유 속에서 음양사상이란 이원적이며 상보적인 사유의 틀을 정립하고 그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인식해왔다(박희식, 2008, 441쪽). 음양사상으로 색을 구분하면 양의 색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고, 음의 색은 하얀색, 까만색이다(임동권, 1984, 87쪽). 양의 색은 밝음과 높음을 의미하면서 길과 복을 나타낸다. 음의 색은 어두움과 낮음을 의미하면서 흉과 화를 나타낸다.

오행사상에 의한 오방정색론은 다섯 가지의 정색(正色)과 다섯 가지의 간색(間色)을 기본으로 한다. 오방정색은 흑백적청황이다. 정색을 섞은 색이 간색이다. 오방정색은 양의 색이고, 오방간색은 음의 색이다. 따라서 오방정색의 하나인 하얀색과 까만색은 음양사상에서는 음의 색이지만, 오행사상에서는 양의 색이 된다. 오방정색론에서 파랑은 생성-동쪽-봄-나무-어짐 등이고, 빨강은 성장-남쪽-여름-불-예의 등이다. 노랑은 조화-중앙-사계절-땅-믿음 등이고, 하양은 결실-서쪽-가을-금속-올바름 등이며, 까망은 휴식-북쪽-겨울-물-지혜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음양사상으로 보는 색은 주로 길흉화복을 나타내고, 오행사상으로 보는 색은 서열이나 계급 또는 순서나 방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양오행사상과 오방정색론은 한자와 함께 전래되고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 시기를 BC 2세기경부터 전래되어 AD 6~7세기에 확산되었을 것으로 본다(한국철학회편, 1987, 76~80쪽; 천인석, 1992). 그렇지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포함하면 시간적 길이가 1천년을 넘기 때문에 확산시기를 좁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확산시기를 추정하여 확산이전과 이후에 사용된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방정색론과 고유의 색이론이 어떻게 갈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삼국유사」의 기사를 분석하여 삼국시대의 색을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연 저 최호 역주, 「신역삼국유사」(서울, 홍신문화사, 1999)를 주된 분석자료로 하고, 강인구 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유사」(서울, 이회문화사, 2003)를 비교자료로 이용하였다. 색채어가 들어가 있는 기사를 한자원문과 한글번역문을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삼국사기」가 삼국시대에 관한 관찬(官撰, 1145년) 정사(正史)라면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一然, 1206~1289)이 고려 후기에 영남지방의 여러 사찰에 기거하면서 당시까지 남아 있는 자료들을 망라하여 편찬한 야사(野史)이다(강인구, 2003, 서문). 「삼국유사」는 왕력(王曆), 기이1(紀異), 기이2(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등 왕력과 9권 140항목으로 구성된다.

삼국시대의 색채어와 색채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삼국사기」의 색채어 종류와 길흥표현에 관한 연구(이규완, 201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삼국유사」를 분석하였다. 색채어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하는데 색채어가 고유명사의 한 부분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고유명사의 유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김유신(金庾信)의 김(金)은 분석대상이 아니지만, “금(金)궤에서 나왔다 하여 이에 성씨를 김(金)씨로 하였다(기이1-22 탈해왕대 김알지).”에 나오는 금궤의 금은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색채어의 길흥분석은 해당 항목에서 길한 의미와 흉한 의미로 명백하게 사용된 경우에만 길함과 흉함으로 구분하였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길흥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신라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설화에 나온 색들은 모두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백마의 백, 자색알의 자, 푸른 큰 알의 청(기이1-18 신라시

조 혁거세왕)을 모두 길한 의미로 분석하였다. 붉은 색인 화(火)는 “2년 정미에 이르러 천구(天狗:하늘개)가 동루 남쪽에 떨어졌는데, 머리가 동이만하고 꼬리는 3자 남짓이며, 색은 맹렬히 타는 불과 같고(色如烈火) 천지가 진동하였다. 안국병법에 천하에 큰 전쟁이 날 징조라고 하였다(기이2-8 혜공왕).”라고 하여 불처럼 붉은 색을 나타내었는데, 전쟁이 날 징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흉한 의미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의 논의

#### 1)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색채어 분석 : 종류와 길흉표현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색채어의 종류와 길흉표현을 분석한 것이 <표 1>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색채어는 총 19종류이고, 색채어가 사용된 빈도는 147회였다. 「삼국유사」에 나온 색채어를 이규완(2011)이 분석한 「삼국사기」의 색채어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규완이 제시한 자료 중에서 기타로 분류한 색을 제외하고 비교하였고, 「삼국사기」에서 사용한 녹색 7회중 4회는 신라의 관직 중 청위(靑位)와 녹사(錄士)를 교대로 관직명으로 사용한 기록에 나오는 록(錄)을 색채어 록(綠)으로 혼돈한 것으로 보여 수정하였다.

「삼국유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하양으로 31회(21.1%) 사용되었는데 한자 색채어로 백색이 29회였고, 소색이 2번이었다. 하얀색을 주로 백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처럼 하얀색의 사용빈도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한자 색채어의 수는 적게 나타났다. 다음이 빨강으로 29회 사용되었다. 빨간색은 적과 홍이 8번씩 사용되었고, 비가 5회, 주가 3회였다. 숙은 4회 사용되었는데 모두 가야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황옥이 타고 온 배의 깃발색과 관련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빨간색을 표현한 한자 색채어가 7개였는데 「삼국유사」에는 6개였다. 강, 단, 신이 없고 숙과 화가 사용되었다. 까만색은 9회 사용되었는데 흑이 7번이었고 검을 치가 2회였다. 치를 당나라의 옷을 도입하기 전의 신라 옷을 나타내거나 승려를 나타낼 때 사용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까만색을 나타내는 한자색채어가 5개였는데 「삼국유사」에는 2개만이 나온다. 보라색은 15회, 노랑은 12회, 파랑은 21회 사용되었다. 금색이 17회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은색, 피(血)

색, 오(五)색, 팔(八)채가 사용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색채어 사용비율을 비교하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까만색을 「삼국사기」(10.5%)보다 「삼국유사」(6.1%)에서 적게 사용한 것이다. 까만색을 나타내는 한자어의 종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비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삼국유사」에서 파란색(7.1% 대 14.3%)과 금색(4.4% 대 11.6%)의 사용비율이 「삼국사기」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삼국유사」에 금색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은 김알지의 탄생설화도 관련이 있지만, 불교 관련 기사에서 금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파란색이 많이 사용된 것은 불교와 오방정색론의 확산과 관계가 있다.

색채어가 나타내는 길흥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삼국사기」에 비해 「삼국유사」의 색채어가 길한 의미로 사용된 비율이 높고(24.7% 대 39.5%), 흉한 의미로 사용된 비율이 낮다(11.1% 대 6.1%). 이는 단군신화나 탄생설화 등이 등장하고, 불교에 관한 기록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서 하얀색은 주로 길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단군신화와 박혁거세 탄생설화에 나오는 하얀색은 모두 하늘을 뜻하는 것으로 길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박혁거세의 탄생설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삼국유사 기이1-18 신라시조 혁거세왕).

(하늘에서 내려온) 사로국의 6촌장들이 자제를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나라를 다스릴 임금을 찾자, 양산 밑 나정 곁에 이상한 기운이 전광처럼 땅에 비치는데 흰 말(白馬) 한 마리가 꿰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 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보랏빛 알 한 개(또는 푸른 큰 알:靑大卵)가 있는데, 말을 사람을 보자 길게 말울음을 울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알을 깨보니 사내아가 나왔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동천에서 목욕시키자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지므로, 그 일로 인해 그를 혁거세왕이라 이름하였다(해설하는 이는 말하기를(說者云) “이는 서술성모가 낳은 바이다. 그러므로 중국사람들이 선도성모를 찬양하여 현인을 낳아 나라를 세웠다는 말이 있음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이제 천자가 이미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있는 왕후를 찾아서 배필을 삼아야 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날 사랑리 알영정 가에 계룡(鷄龍)이 나타나 왼쪽 겨드랑이에서 계집아이를 낳았는데 모습과 얼굴은 유달리 고왔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 월성 북천에 가서 목욕시키니 부리가 떨어졌다. 사내

아이는 알에서 나왔으며 그 알은 박과 같았다. 향인들은 그 성을 박(朴)이라고 하였다. 계집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름으로써 이름을 지었다. 두 성인의 나이 13살이 되자 원년 갑자(BC 57)에 남자는 왕이 되고, 그 여자로 황후를 삼았다.

박혁거세 탄생설화에서 하얀색은 흰 말(白馬), 하늘로 올라갔다, 혁거세(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림), 박(朴)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모두가 밝은 빛, 하늘, 하얀색의 의미로 혁거세가 왕이 되었으므로 길한 의미를 갖는다. 알영의 탄생에 나오는 꼬리가 긴 새인 닭은 하늘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 중에서 까마귀는 검은 색이고, 닭은 하얀색이다.

빨간색은 「삼국사기」에서 길한 의미와 흉한 의미로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된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길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더 많았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붉은 색인 숙(蓀)은 허황후가 타고 온 배의 깃발색을 나타낼 때 사용한 것이다. 즉,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돛을 단 배(비범;緋帆)가 붉은 깃발(숙기;蓀旗)을 나부끼며 북쪽을 향해 다가오므로...(기이2-23 가락국기)”에 나온다. 이 내용은 <탐상 4 금관성과 파사석탑> 항목에서 허황후 황옥이 파사석탑을 배에 싣고 왔다고 기록하면서 비범과 숙기를 다시 말한다. 허황후가 타고 온 배와 영험이 있는 파사석탑을 싣고 온 배가 숙기를 달았으므로 숙은 길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서 흉한 의미이거나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까만색은 「삼국유사」에서는 거의 모두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어 까만색의 부정적 의미가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삼국유사」에 「삼국사기」보다 많이 사용되면서 길한 의미로 사용된 2개의 색이 파란색과 금색이다. 파란색은 「삼국사기」에서는 2회만이 길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6회나 사용되었다. 또한 금색도 「삼국사기」에서는 3회만이 길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12회나 길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삼국유사」에서 파란색은 동쪽을 의미하거나 불교를 의미하였다. 진표올사가 미륵상 앞에서 계법을 구하려고 3년을 노력했으나 수가를 얻지 못하자 발분하여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려 하니 갑자기 청의동자가 나와 손으로 잡아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의해 11 관동풍악 발연수석기). 또는 보천대사가 오대산에 가서 청련(靑蓮:푸른연꽃)이 피어 있는 곳에 암자를 지었다(탐상 22 대산오만진신)는 것처럼 불교와 연관되어 자주 사용되었다.

<표 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색채어종류와 길흥표현 비교(괄호안은 %)

| 색채어 |     | 삼국사기                |              |              |               |     | 삼국유사                |              |            |              |     |   |
|-----|-----|---------------------|--------------|--------------|---------------|-----|---------------------|--------------|------------|--------------|-----|---|
| 한글  | 한자  | 빈도                  | 길            | 흥            | 없음            | 소계  | 빈도                  | 길            | 흥          | 없음           | 소계  |   |
| 하양  | 백白  | 77<br>(26.0)        | 41           | 9            | 21            | 71  | 31<br>(21.1)        | 12           | 1          | 16           | 29  |   |
|     | 소素  |                     |              | 1            | 4             | 5   |                     | 1            |            | 1            | 2   |   |
|     | 옥玉  |                     |              |              | 1             | 1   |                     |              |            |              |     |   |
| 빨강  | 적赤  | 60<br>(20.3)        | 10           | 9            | 19            | 38  | 29<br>(19.7)        | 1            | 2          | 5            | 8   |   |
|     | 비緋  |                     |              | 1            | 7             | 8   |                     | 4            |            | 1            | 5   |   |
|     | 홍紅  |                     |              |              | 6             | 6   |                     | 3            | 1          | 4            | 8   |   |
|     | 주朱  |                     | 1            |              | 2             | 3   |                     |              |            | 3            | 3   |   |
|     | 강絳  |                     |              |              | 2             | 2   |                     |              |            |              |     |   |
|     | 단丹  |                     |              | 1            |               | 1   |                     |              |            |              |     |   |
|     | 신騞  |                     |              | 1            |               | 1   |                     |              |            |              |     |   |
|     | 숙茜  |                     |              |              |               |     |                     |              | 4          |              |     | 4 |
| 화火  |     |                     |              |              |               |     | 1                   |              | 1          |              |     |   |
| 까망  | 흑黑  | 31<br>(10.5)        |              | 5            | 9             | 14  | 9<br>(6.1)          |              | 1          | 6            | 7   |   |
|     | 오烏  |                     |              |              | 11            | 11  |                     |              |            |              |     |   |
|     | 현玄  |                     | 1            | 1            | 2             | 4   |                     |              |            |              |     |   |
|     | 조阜  |                     |              |              | 1             | 1   |                     |              |            |              |     |   |
|     | 치緇  |                     |              |              | 1             | 1   |                     |              |            |              | 2   | 2 |
| 보라  | 자紫  | 27<br>(9.1)         | 4            |              | 23            | 27  | 15<br>(10.2)        | 6            | 1          | 8            | 15  |   |
| 노랑  | 황黃  | 21<br>(7.1)         | 3            | 2            | 16            | 21  | 12<br>(8.2)         | 2            | 1          | 9            | 12  |   |
| 파랑  | 청靑  | 21<br>(7.1)         | 2            |              | 18            | 20  | 21<br>(14.3)        | 6            |            | 14           | 20  |   |
|     | 취聚  |                     |              |              | 1             | 1   |                     |              |            |              |     |   |
|     | 창蒼  |                     |              |              |               |     |                     |              |            | 1            | 1   |   |
| 금색  | 금金  | 13<br>(4.4)         | 3            |              | 10            | 13  | 17<br>(11.6)        | 12           |            | 5            | 17  |   |
| 녹색  | 록綠  | 3                   | 1            |              | 2             | 3   |                     |              |            |              |     |   |
| 자자분 | 紫紫粉 | 6                   |              |              | 6             | 6   |                     |              |            |              |     |   |
| 은색  | 銀   | 5                   |              |              | 5             | 5   | 1                   | 1            |            |              | 1   |   |
| 자황  | 赭黃  | 4                   |              |              | 4             | 4   |                     |              |            |              |     |   |
| 계색  | 麴   | 3                   |              |              | 3             | 3   |                     |              |            |              |     |   |
| 피색  | 血   | 3                   |              | 3            |               | 3   | 3                   |              |            | 3            | 3   |   |
| 홍비  | 紅緋  | 2                   |              |              | 2             | 2   |                     |              |            |              |     |   |
| 자백  | 紫白  | 2                   | 1            |              | 1             | 2   |                     |              |            |              |     |   |
| 청자  | 靑紫  | 2                   | 1            |              | 1             | 2   |                     |              |            |              |     |   |
| 청적  | 靑赤  | 3                   | 1            |              | 2             | 3   |                     |              |            |              |     |   |
| 오색  | 五色  | 9                   | 1            |              | 8             | 9   | 7                   | 5            | 1          | 1            | 7   |   |
| 채   | 彩   | 2                   | 1            |              | 1             | 2   | 八彩 <sup>2</sup>     | 1            |            | 1            | 2   |   |
| 신   | 神   | 2                   | 2            |              |               | 2   |                     |              |            |              |     |   |
| 소계  |     | 296<br>33색<br>(100) | 73<br>(24.7) | 33<br>(11.1) | 190<br>(64.2) | 296 | 147<br>19색<br>(100) | 58<br>(39.5) | 9<br>(6.1) | 80<br>(54.4) | 147 |   |

\*삼국사기의 색의 종류와 빈도는 이규완, “삼국시대 색채어의 종류와 길흥표현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5권 3호(2011) 113면에서 인용.

보천대사 이후에 대현대사, 진표율사 등 신라불교의 고승과 관련된 기사에서 파란색이 동쪽을 의미하는 색으로 사용된다. 대현대사는 스스로 청구사문(靑丘沙門)으로 칭하였다(삼국유사 의해 14 대현유가중).

금색도 불교와 연관되어 길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나이 약관에 이르자 삭발하고 중이 되었는데 밤에 꿈을 꾸니 백호광이 서쪽으로부터 이르렀는데 그 빛 가운데 금색 팔뚝이 내려와서 그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남자가 한밤중에 박박에게 암자에서 하루를 머물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부득에게는 허락을 받았다. 남자가 아이를 낳자 부득이 목욕을 시켰는데 그 물이 금액(金液)으로 변화하였다. 부득대사도 그 물로 목욕을 하라하여 마지못해 따르자 정신이 맑아지며 피부가 금빛으로 변했다. 그 때 남자가 “나는 관음보살인데 대사를 돕기 위해 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탐상 18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처럼 불교와 연관되어 길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많았다.

「삼국사기」와 비교하여 「삼국유사」에 사용된 색채어의 특징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얀색의 사용빈도가 가장 많았고, 길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둘째, 빨간색과 까만색의 흉한 의미가 감소하였다. 셋째, 파란색과 금색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고, 길한 의미가 강조되었다. 넷째, 하얀색에 하늘과 천신 그리고 태양이라는 의미 이외에 서쪽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 2) 하얀색의 의미변화

「삼국유사」에 사용된 색채어 중에 의미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얀색이다. 하얀색은 천신사상에 근거하여 하늘이나 천신 또는 태양을 의미하는 색이었다. 그러나 하얀색에 오방정색론에 따른 서쪽의 의미가 더해지는 과정을 「삼국유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 중에 박혁거세의 탄생설화, 김알지의 탄생설화 그리고 선도성모 설화 등을 통해 하얀색이 하늘을 뜻하는 것에서 서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박혁거세의 탄생설화는 박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신사상에 입각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백마와 박은 하늘과 밝음을 뜻한다. 그런데 글 중간 부분에 ‘설자운(說者云)’이란 말을 넣어서 중국황제의 딸인 선도성모가 낳았다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중국황제의 딸이 박혁

거세를 낳았다면 박혁거세에 나오는 백마의 하얀색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서쪽을 뜻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하얀색의 의미가 천신사상의 하늘에서 오방정색론의 서쪽이라는 의미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박혁거세 탄생설화에 ‘설자운(說者云)’하여 원래의 뜻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내용을 부기하였는데, 내용이 「삼국유사」의 선도성모항목(감통 7)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즉,

신모는 본래 중국 황실의 딸로서 이름은 사소인데, 사소가 처음 진한에 이르러서 성자 둘을 낳고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으니, 대개 혁거세와 알영 두 성인을 낳았다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계룡(雞龍), 계림(雞林), 백마(白馬) 등이라고 칭하였으니(故稱雞龍雞林白馬), 닭은 서쪽에 속하기 때문이다(雞屬西故也). 일찍이 여러 천선으로 하여금 비단을 짜게 하고 붉은 색(緋) 물을 들여 조의(朝衣)를 만들어서(緋染作朝衣) 그 남편에게 주니 나라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신험을 알게 되었다.

박혁거세의 탄생설화와 선도성모의 내용을 연결하면 계룡, 계림, 백마 등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붉은 색의 조의를 만든 것을 보고 사소가 중국에서 온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내용을 통해 선도성모 이야기는 중국의 복식을 들여온 진덕여왕 3년(650)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박혁거세 설화에 있는 ‘설자운’ 이하의 내용이 나 선도성모 사소의 이야기 등은 나중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를 삽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계룡, 계림 등은 김알지 설화에 나오는데 서쪽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선도성모 설화에서 별도로 설명하기 때문에 색이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는 과정에서는 3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방정색론에 의한 색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기술방식은 선덕여왕의 지기삼사(삼국유사 기이1-32 선덕왕지기삼사), 고구려 유리왕의 붉은 개구리 이야기(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29년)와 동일하다. 즉, 이들 이야기가 오방정색론의 구체적 내용을 따로 설명해야 되는 3 단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박혁거세의 설화와 선도성모의 설화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것은 하얀색의 의

미를 하늘(박혁거세)에서 서쪽(중국:선도성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박혁거세의 탄생설화에서 박혁거세는 흰 말이 하늘로 올라간 자리에 있던 자주색 알에서 태어나고, 알영은 계룡(닭)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선도성모 설화는 중국황실(서쪽)의 딸인 신모가 신라(동쪽)로 와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들이 박혁거세와 알영이라는 것이다. 천신사상의 하얀색이 오방정색론의 하얀색으로 전환되면 하늘이라는 뜻이 서쪽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것이다. 백마가 하늘로 올라가고, 자색란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천신사상의 흐름이다. 하늘과 태양을 뜻하는 백마의 흰색을 서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자색알을 청란으로 바꾸면 동쪽에서 낳았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오방정색론으로 해석하면 박혁거세는 서쪽(중국)에서 동쪽(신라)으로 옮겨온 사람이 된다.

박혁거세 설화에 나오는 색의 의미를 천신사상의 의미 이외에 오행사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암시가 ‘설자운’의 내용에 들어있다. 이러한 의미전환을 연결하여 설명해주는 것이 탈해왕대의 김알지 설화(삼국유사 기이1-22 탈해왕대 김알지)라고 할 수 있다. 김알지의 탄생설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평 3년 경신(60) 8월 4일에 호공이 밤에 월성 서쪽 마을을 가다가 시림(始林: 석탈해왕이 흰닭(白鷄)이 울고 알지가 나왔다고 하여 계림(鷄林)으로 이름을 바꿈) 가운데에 큰 밝은 빛을 보았다. 자주색 구름이 하늘로부터 땅에 뽀얗고, 구름 속에는 황금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빛은 궤로부터 나왔다. 또한 흰 닭이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이러한 상황을 왕에게 아뢰자, 왕이 그 숲에 행차하여 그 궤를 열어보니 동자가 누워 있다가 바로 일어났다. 혁거세의 고사와 같으므로 그 말로 인해 알지라고 이름하였다. 알지는 곧 우리말로 어린아기를 말하는 것이다...금궤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金)씨라고 하였다...미추가 왕위에 오르니 신라의 김씨는 알지로부터 시작되었다.

박혁거세 설화와 김알지 설화를 연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혁거세는 백마와 자주빛 알(또는 파란 큰 알), 알영은 계룡, 김알지는 시림에서 흰 닭(계룡)이다. 혁거세와 알지는 흰색으로 연결되는데 성이 박과 김으로 다르다. 박은 하늘(천신사상)을 의미하고, 김은 금속이므로 서쪽(오행사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알영과 김알지는 계룡(닭)으로 연결되는데 알영의 경우는 그냥 닭이고 김알지는 흰 닭이다. 여기서 알영의 닭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상징인데 반해, 김알지의 흰 닭은 서

쪽을 의미하는 오행인 금(金)으로 연결된 금궤와 합쳐져서 서쪽을 의미한다. 결국 박혁거세와 알영의 설화에 나오는 천신사상의 하늘로 올라간 백마(하늘)와 계룡(닭, 하늘)이 오행사상의 백마(서쪽)와 계룡(서쪽) 그리고 금궤(서쪽)로 바뀌면서 그 의미도 하늘과 태양에서 서쪽과 중국으로 전환된다. 김알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김알지의 설화에는 오방정색론의 색으로 김알지가 서쪽에서 이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다.

### 3) 오방정색론의 확산시기

오방정색론은 한국의 전통색을 설명하는 색이론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기존연구들은 오방정색론이 삼국시대에 이미 사용되었다고만 할 뿐, 언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설명한 경우는 없었다. 그 결과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거의 1천년에 걸쳐 사용된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오방정색론으로만 설명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오방정색론의 전래와 확산을 살펴볼 수 있는 색은 하얀색(白)과 파란색(靑)이다. 하얀색은 천신사상에서는 하늘과 태양을 의미하는 색이지만 오방정색론에서는 서쪽이나 금(쇠)을 의미하는 색이다. 파란색은 불교에서는 문수보살을 의미하지만, 오방정색론에서는 동쪽의 의미를 갖는다.

「삼국유사」의 색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의미해석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것이 <표 2>다. 색에 사회문화적 의미가 내포되는 단계(이규완, 2011, 118쪽)를 이용하여 3단계와 6단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참고로 고유사상에 의한 색의 의미와 오방정색론에 의한 색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기 위해 「삼국사기」에 실린 오방정색론의 전래를 알려주는 기사 2개를 포함시켰다.

<표 2>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변천과 색이론의 변화

| 사례   | 내용               | 색          | 의미                | 해석사상<br>색이론    | 단계 | 연대              | 출처       |
|------|------------------|------------|-------------------|----------------|----|-----------------|----------|
| 단군   | 아사달, 단군          | 하양         | 하늘                | 천신사상           | 6  | BC 2333         | 유사<br>기이 |
| 박혁거세 | 백마, 자색란<br>(청대란) | 하양<br>(파랑) | 하늘, 태양<br>(동쪽)    | 천신사상<br>(오행사상) | 6  | BC 69           | 유사<br>기이 |
| 유리왕  | 붉은개구리<br>검은개구리   | 빨강<br>까망   | 남쪽, 고구려<br>북쪽, 부여 | 오행사상<br>오방정색론  | 3  | AD 10           | 사기       |
| 대무신왕 | 머리 돌인<br>붉은 까마귀  | 빨강         | 남쪽, 고구려           | 오행사상<br>오방정색론  | 3  | AD 19           | 사기       |
| 김알지  | 계룡, 계림,<br>금궤    | 하양<br>금색   | 서쪽, 중국            | 오행사상<br>오방정색론  | 3  | AD 60           | 유사<br>기이 |
| 선도성모 | 계림, 백마,          | 하양         | 서쪽, 중국            | 오방정색론          | 3  | ?(진덕여왕<br>이후)   | 유사<br>감통 |
| 선덕여왕 | 옥문지, 음,<br>서쪽    | 하양         | 서쪽, 백제            | 음양오행<br>오방정색론  | 3  | 632~648         | 유사<br>기이 |
| 자장대사 | 불교 확산            | 빨강         | 문수보살<br>(인도의 색)   |                |    | 선덕,진덕<br>왕대     | 유사<br>탐상 |
| 명랑대사 | 파란 구슬            | 파랑         | 문수보살<br>(중국의 색)   | 불교             | 6  | 문무왕대<br>668     | 유사<br>신주 |
| 보천대사 | 청련               | 파랑         | 문수보살              | 불교             | 6  | 신문왕대<br>681~692 | 유사<br>탐상 |
|      | 오대산과<br>오만진신     | 파랑         | 동쪽:관음보살           | 불교,<br>오방정색론   | 6  | 효소왕대<br>692~737 | 유사<br>탐상 |
|      |                  | 빨강         | 남쪽:지장보살           |                |    |                 |          |
|      |                  | 하양         | 서쪽:무량수여래          |                |    |                 |          |
|      |                  | 까망         | 북쪽:석가여래           |                |    |                 |          |
| 노랑   | 중앙:비로자나불         |            |                   |                |    |                 |          |
| 대현대사 | 청구사문             | 파랑         | 동쪽, 신라            | 오방정색론          | 6  | 742-765         | 유사<br>의해 |
| 진표율사 | 청의동자<br>청송       | 파랑<br>파랑   | 동쪽, 신라<br>동쪽, 신라  | 오방정색론<br>오방정색론 | 6  | 762             | 유사<br>의해 |

오방정색론은 알지로부터 600년이 지나 선덕여왕에 이르러 밖으로 나타난다. 선덕왕의 지기삼사(삼국유사 기이1-32 선덕왕지기삼사) 중에서 오방정색론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묘사의 옥문지(玉門池)에서 겨울철인데도 많은 개구리가 모여 3, 4일 동안 울었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왕에게 물었다. 왕은 급히 각간 알천, 필탄 등을 시켜 정병 2천명을 뽑아서 속히 서쪽 교외로 가서 여근곡(女根谷)을 탐문하면 반드시 적병이 있을 것이니 습격하여 죽이라고 하였다.…과연 부산 아래 여근곡이 있고, 백제 병사 5백명이 와서 거기에 매복해 있었으므로 모두 잡아 죽였다. 당시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어떻게 하여 개구리 우는 일을 그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개구리는 노한 모습을 하고 있어 병사의 형상이다. 옥문은 여자의 생식기이다. 여자는 음(陰)이 되니 그 음의 색은 흰색이고 흰색은 서방이다. 그러므로 군사가 서방에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하들이 모두 그 뛰어난 지혜에 감복하였다.

박혁거세와 알영의 설화는 천신사상을 나타내고, 김알지의 설화는 오방정색론을 감추고 있는데, 선덕여왕의 지기삼사는 음양오행설과 오방정색론을 끌어내어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하들은 그 지혜에 감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신하들은 오행사상과 오방정색을 실제로 활용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알지로부터 선덕여왕까지 신라의 김씨 왕실에서 음양오행설과 오방정색론이 전승되어 왔지만, 세간에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덕여왕 이후에는 왕이 오방정색론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불교의 고승들이 오방정색론을 말한다. 신라가 불교를 인정한 것은 법흥왕 15년(529년)이지만, 불교가 널리 퍼지는 것은 자장대사가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선덕여왕 이후이다. 당나라 황제가 뛰어난 학승인 자장대사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아, 선덕여왕이 상소를 보내 귀국을 요청하였다. 자장이 귀국하여 신라의 대국통이 되어 불교를 가르치자 “사람들이 계를 받고 부처를 받드니 10집 가운데 8~9집은 머리를 깎고 불법을 청하는 자가 세월이 갈수록 더 늘어났다”(삼국유사 의해 6 자장정유). 따라서 법흥왕이 불교를 인정하였지만, 신라불교가 민간에 널리 확산된 것은 선덕여왕(재위:632~64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신라왕실과 불교를 왕실의 태자들이 연결한다. 대표적인 예가 삼국통일을 완성한 신문왕(삼국유사에는 정신왕으로 나옴, 재위:681~692년)의 태자인 보천대사이다. 보천대사는 신문왕의 태자인데 자장대사가 귀국한 후 동생인 효명태자와 함께 출가하여 승려가 된다. 보천대사가 왕위를 사양하여 동생 효명태자가 신문왕의 뒤를 이어 효소왕(재위:692~702년)이 된다. 보천대사는 임종할 때에 강원도 오대산 다섯 봉우리의 방위와 색을 연결하고 이것을 다섯 부처님과 연결하여 나라를 지키는 방편으로 남긴다(삼국유사 탐상 22 대산오만진신). 즉, 동쪽봉우리-파랑-관음보살, 남쪽봉우리-빨강-지장보살, 서쪽봉우리-하양-무량수여래, 북쪽봉우리-까망-석가여래, 중앙-노랑-비로자나불로 연결시키고, 이를 잘 지키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국통일을 완성한 신문왕의 장남인 보천대사는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하였지만 신라왕실과 불교를 연결하고, 오방정색론으로 오대산의 방위, 색, 부처를 연결하여 국가의 안위와 연결시킨다. 즉, 오방정색론은 왕실에서 불교로 옮겨지고 다시 나라 전체에 확산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사 중에서 오방정색론의 확산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았다. 먼저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나오는 기록 등에서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음양오행설과 오방정색론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래되었다는 것과 널리 확산되어 사용된 것은 다르다. 이것을 색이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계로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먼저 박혁거세의 탄생설화에는 백마와 자색란 등에 나오는 색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다. 즉, 천신사상에 의한 익숙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알지 탄생설화, 선도성모 설화 그리고 선덕여왕의 기이에서는 계룡, 백마, 옥문지 등에서 백색이 무슨 뜻인지를 따로 설명한다. 특히 선덕여왕의 기사에서는 옥문지를 음으로 해석하고 음의 색인 백색에서 서쪽을 유추하여 서쪽의 나라인 백제의 군사가 숨어 있음을 알았다고 신하들에게 설명(3단계)한다. 신하들은 왕의 지혜에 감탄하였다고 하여 신하들의 반응을 적고 있다. 선덕여왕은 음양오행설을 알고 있었지만, 신하들은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천대사가 임종 시에 남겼다는 오대산 기사는 ‘동쪽은 청이니 관음보살을 모시고’처럼 그 관계를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방위와 색의 연결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방정색론이 확산되었다는 의미(6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박혁거세에서는 천신사상이 나온다. 김알지에서는 오방정색론

이 감추어져 있다. 선도성모에서는 오방정색론의 내용으로 박혁거세와 김알지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색과 동물의 의미가 서쪽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선덕여왕에서는 음양사상과 오방정색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보천대사 이후에는 오방정색론을 별도의 설명없이 사용한다. 결국 박혁거세 탄생설화, 김알지 탄생설화, 선덕여왕의 기이, 선도성모 설화, 그리고 보천대사의 오대산 오만진신 등의 기사를 연결하여 분석하면 오방정색론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7~8세기)에 널리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양오행설과 그것에 근거한 오방정색론은 삼국시대 초기에 전래되었지만, 민간에까지 확산되어 사용되는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서기 7~8세기경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자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서기 6~7세기와 약 1세기의 차이가 있다. 오방정색론을 확산시키는 주된 역할을 왕실이 아니라 불교가 담당하였고, 왕실과 불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왕족 출신의 승려가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방정색론이 확산된 이후에도 신라가 색의 의미해석을 오방정색론으로 통일한 것은 아니다. 통일신라는 여전히 고유사상에 따라 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국 당나라의 군대를 백제유민과 고구려유민의 힘을 합쳐 몰아낸 신라는 이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신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놓은 자주적 세계관을 구축하여 새로운 지배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통사상에 따라 색을 사용하였다(김병근, 2002; 노중국, 1999; 김진광, 2009; 이동휘, 2005). 이 자주적 세계관에서 신라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었다. 신라의 자주적 세계관과 고유사상의 발전을 색의 사용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신라는 귀족 중심에서 왕 중심으로 지배체제를 재편하면서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서한 직할부대로 9서당(九誓幢)을 만들었다(삼국사기 지 제9 직관 하 무관). 구서당의 이름을 구성원인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그리고 말갈인에 따라 색으로 구별하는 불였다. 백제인으로 구성된 서당은 청금서당과 백금서당이고,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서당은 황금서당과 적금서당이다. 청색과 백색은 백제인이 선호하였던 색이고, 황색과 적색은 고구려인이 선호하였던 색이다. 서당의 명칭과 부대를 구별하는 일종의 휘장인 금(衿)의 색을 오방정색론에 따라 부여하지 않고 백제인, 고구려인, 신라인들이 오래전부터 선호하던 색을 적용하였다. 오방정색론에 따랐다면 서쪽에 있었던 백제인에게 청색(동쪽)을 쓸 수 없고,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인에게 황색(중양)과 적색(남쪽)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방정색론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한 7~8세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기록이나 문물에 사용된 색이나 색채어의 의미를 상황별로 천신사상 같은 고유사상과 중국에서 전래된 오방정색론 중에서 선택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간의 많은 연구처럼 오방정색론에만 의존하여 색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오방정색론이 확산된 이후에도 신라는 오방정색론에 의한 색과 고유사상에 의한 색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 4. 결론

### 1) 연구결과의 요약

사물의 질감이나 모양이 현재에 비해 단순하였던 왕조시대에 색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삼국시대의 대표적 사료의 하나인 「삼국유사」에 사용된 색채어를 분석하여 삼국시대의 색에 대해 알아보았다. 「삼국유사」에는 총 19가지의 색이 147회에 걸쳐 사용되었다. 우리말의 기본색채어인 하양(21.1%), 빨강(19.7%), 까망(6.1%), 파랑(14.3%), 노랑(8.2%) 등 5가지 색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였다. 우리 민족이 하얀색과 빨간색을 선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라색(10.2%)과 금색(11.6%)도 기본색채어 수준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들 7 가지의 색이 전체 색채어의 90%를 차지한다.

「삼국유사」에서도 「삼국사기」처럼 하얀 색의 사용이 가장 많아서 우리 민족이 하얀 색을 숭상하고 즐겨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삼국사기」에 비해 「삼국유사」에서는 빨간색과 까만색의 흥한 의미가 감소하였다. 파란색과 금색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고, 길한 의미가 강조되었다. 하얀색은 31회 등장하였는데 한자어는 백(29회)과 소(2회) 두 글자였다. 그렇지만 29회 사용된 빨간색은 적(8회), 홍(8회), 비(5회), 주(3회) 등 여섯 개의 한자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까만색은 9회 등장하는데 흑(7회)과 치(2회) 두 글자였다. 결국 우리말의 색채어가 아무리 많아도 한자

로 표기할 때에는 한자색채어의 종류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뜻글자를 빌어 소리말을 기록할 때 발생하는 한계라고 하겠다.

하늘이나 천신 또는 태양을 의미하던 하얀색에 서쪽이나 중국 또는 금속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오방정색론의 전래와 확산과 연결된 색의 의미변화이다.

「삼국유사」의 기사를 통해 오방정색론이 7~8세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불교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와 겹친다고 할 수 있다. 한자가 6~7세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보다 약 1세기 정도 늦은 것이다. 또한 오방정색론의 확산에 신라왕족 출신의 승려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오방정색론은 한국 전통색의 의미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색이론이지만 그에 따른 색의 의미는 고유사상의 색이론이 갖는 의미와 충돌한다. 특히 하얀색을 고유사상에서는 하늘로 해석하지만 오방정색론으로는 서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주요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방정색론의 확산 이전에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에서 색의 의미해석은 우리민족 고유의 색사상이나 커뮤니케이션사상에 기초해야 하고, 확산 시기 이후에는 맥락에 따라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색채어의 분석만으로 삼국시대에 어떤 색을 얼마나 사용하였고, 또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통색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오방정색론이 언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추론하는 것도 충분하지는 않다. 문자로 정리된 기록만이 아니라 삼국시대의 문화재에 남아 있는 색과 문양 등을 분석하여 문자기록과 실제 생활의 차이를 극복해야만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자료와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많은 자료 중에서 「삼국유사」의 기록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기에 한계가 크다. 그렇지만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해야 언젠가는 결실을 볼 것이라는 한 걸음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된다.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색의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

특히 사대주의를 택하였던 조선시대에는 흰옷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다. 우리민족은 하늘의 후손으로 백색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조선은 중국의 동쪽에 있으므로 청색옷을 입어야지 서쪽을 뜻하는 백색옷을 입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충돌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는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처럼 색의 의미해석은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을 다투는 것이 되기도 하였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색을 미디어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보다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먼 옛날에는 색이 미디어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금이 입는 옷과 신하가 입는 옷이 유사하지만 색의 차이로 임금과 신하를 구별하였다면 색은 미디어이고 상징이고 의미가 된다. 이처럼 색, 그림, 소리, 문자 등의 상징이나 콘텐츠를 미디어 이전의 미디어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커뮤니케이션연구 또는 커뮤니케이션 역사연구에서 시간적 길이를 깊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과거의 커뮤니케이션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현재의 커뮤니케이션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고, 이러한 상상을 통해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을 그려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강인구, 김두진, 김상현, 장충식, 황패강(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유사」, 서울, 이회문화사.
- 권준혁(2002), 삼국시대 품급별 복색제도의 제정시기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5권 1호, 63~76.
- 김명하(2002), 한국 상고대 정치사상에서의 천인관계, 「동양정치사상사」1권 1호, 27~52.
- 김방한(1998), 「언어와 역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병곤(2002), 삼국시대 중앙집권적 왕권의 등장에 따른 지배이념의 채택, 「한국사연구」117호, 1~30.
- 김부식 찬 최호 역주(1994), 「신역 삼국사기」, 서울, 흥신문화사.
- 김성재(2012), 「한국의 소리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순규(1997), 「한국의 군복식 발달사1:고대-독립운동기」,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김영수(1979), 한국전통시의 색채연구, 「어문연구」7권2호, 233~258.
- 김영숙(1988),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주(2009), 조선시대 구연제도의 절차와 내용 연구, 「언론과학연구」9권 4호, 135~169.
- 김용훈(1987), 「색채상품개발론」, 서울, 청우.
- 김은경, 김영인(2006), 한국인의 흰색 상징, 「한국색채학회지」, 20권 4호, 25~39.
- 김정자(1998), 「한국군복의 변천사 연구:전투복을 중심으로(한국복식연구총서1)」, 서울, 민속원.
- 김주미(2004), 봉황문과 한민족의 천신사상, 「문화사학」21호, 한국문화사학회, 135~169.
- \_\_\_\_\_(2009),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일상문양 연구, 「고구려발해연구」34호, 101~130.
- 김진광(2009), “「삼국사기」본기에 나타난 말갈의 성격,” 「고구려발해연구」35호, 9~42.
- 김진규(1994), 신라복식 어휘의 연구, 「복식문화연구」, 2권 2호, 189~201.
- \_\_\_\_\_(1998), 삼국사기의 복식연구 IV : 색복의 부인복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6권 2호, 36~44.
- \_\_\_\_\_(1999), 삼국사기의 복식연구 V: 악공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7권 2호, 205~210.
- 노중국(1999), 신라통일기 구서당의 성립과 성격, 「한국사론」 41-42호, 161-203.
- 문은배(2012), 「한국의 전통색」, 파주, 안그라픽스.
- 박상진(2005), 고대음악사상 연구, 「동양예술」10호, 126~145.
- 박희식(2008), 「동양의 고대 커뮤니케이션 사상」,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2010), 단군신화의 원시형에 내재된 우리나라 고대 원시인들의 커뮤니케이션

- 사상, 「한국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47~82.
- 송환아(1997), 한국 전통회화의 색채 미의식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9권 1호, 205~237.
- 신현신, 신경아, 신일기(2009), 옥외광고(sign)의 레이아웃 구성형태와 색상조화에 따른 차이가 수용자 기억과 상점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슈탈트 이론을 중심으로, 「옥외광고연구」 6권 4호, 127~149.
- 원혜정(2009), 국가별 선호색채와 TV 세트디자인 색채의 상호관계성 연구: 한국, 일본, 대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세트디자인 색채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완(2011), 삼국시대 색채어의 종류와 길흥표현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55권 3호, 103~122.
- 이동휘(2005), <삼국사기> 말갈의 활동범위와 성격, 「역사와 세계」27호, 1~27.
- 이부형(1990), 고시조에 나타난 색채 표상고, 「동악어문논집」, 25호, 157~195.
- 이순만(1997), 동양의 자연사상과 한국의 전통색채연구, 「디자인논문집」, 2호, 5~27.
- 이은미, 은영자(1994), 전통색채에 관한 연구: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과학논집」29호, 101~137.
- 이재만(2005), 「한국의 색」, 서울, 일지사.
- 이종상(2001), 한국인의 색채의식 소고, 「조형 FORM」, 24호, 37~50.
- 일 연, 「삼국유사」; 최호 역해(1999), 「신역 삼국유사」, 서울, 흥신문화사.
- 임동권(1984), 「한국민속학논고」, 서울, 집문당.
- 전혜숙(1998), 신라통일기 정치적 상황과 복식연구, 「복식문화연구」6권 2호, 181~202.
- 정경환(2009), 한국고대정치사상의 내용과 의미, 「민족사상」3권 2호, 9~46.
- 정유나(1996), 단청문양을 통한 한국 전통배색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6호, 35~48.
- 정진강(2005), 중국어 색채어에 보이는 상징의미-빨강,노랑, 파랑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호, 29~42.
- 주미경(2007), 신라 건국신화를 통해 본 신라인의 색채의식 형성 시론,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1권 1호, 61~69.
- 주영주(2004), 한국의 색동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제7권 1호, 91~103.
- 최일도(2011), 국가브랜드 PR의 상징으로서 국가가 지니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관한 연구: 국기의 색채구성이 지니는 시각적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 광고홍보학보」13권 4호, 498~527.
- 천인석(1992), 삼국시대에서의 음양오행설의 전개, 「유교사상연구」4권 1호, 107~128.

- 하용득(2001),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 한국철학회편(1987), 「한국철학사(상권)」, 서울, 동명사.
- 한준수(2010), 신라 진덕왕대 당제의 수용과 체제정비, 「한국학논총」34호, 309~352.
- Brusatin, M., *STORIA DEI COLORI*, 1983; 정진국역(2002), 「색채 그 화려한 역사」, 서울, 까치.
- Knapp, Mark L. and Judith A. Hall(2006),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6th edition)*, Toronto, Thomson.
- Messouris, Paul(1997), *Visual Persuasion* ; 강태완 옮김(2004), 「설득이미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초투고일 : 2012년 12월 24일

논문수정일 : 2013년 05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5월 21일

# A Study on the Color-words in Samkukyoosa and the Diffusion of Obangjungsak

**Kyu-Wan Le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onga University, Korea)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olor-word in Samkukyoosa(a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n Korea) and the diffusion of obangjungsak(a thought of traditional color). In Samkukyoosa, 19 color-words was used in 147 articles and the proportion of white(21.1%)/black(6.1%)/red(19.7%)/blue(14.3%)/yellow(8.2%) was almost 70% of them. The articles involving blue and gold-color were more used in Samkukyoosa compared to the Samkuksagi. The meaning of white color was changed heaven/sun to west/china in the Samkookyoousa. The obangjungsak was diffused by the blood royals and monks of Silla in 7~8 century after the reunion of three kingdoms. It was late about 1 century to the diffusion of Hanza(Chinese letter).

Key Words: Color-communication, Samkooksidae, Color-words, Samkukyoosa, Obangjungsak, Traditional thoughts